

01. ⑤	02. ⑤	03. ③	04. ①	05. ⑤	06. ①	07. ③	08. ②	09. ④	10. ①
11. ①	12. ③	13. ⑤	14. ①	15. ②	16. ④	17. ①	18. ④	19. ⑤	20. ⑤
21. ⑤	22. ③	23. ④	24. ⑤	25. ④	26. ⑤	27. ①	28. ⑤	29. ②	30. ①
31. ②	32. ④	33. ⑤	34. ④	35. ②	36. ④	37. ③	38. ①	39. ③	40. ⑤
41. ②	42. ④	43. ③	44. ③	45. ②					

[1~2]

1. 말하기 계획 평가

정답해설 : 발표자는 마지막 부분에서 독서 토론 노트의 장점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독서 토론 노트 사용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며 발표를 끝맺고 있다. '마무리 부분에서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앞부분에서 '결과가 궁금하시죠?'라는 질문을 통해 청중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② '이 시간에 저는 ~ 제안하고자 합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발표 주제를 선정한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 ③ 독서 토론 노트의 활용 방법을 소개하고, 독서 토론 노트 작성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함으로써 '독서 토론이 잘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④ '먼저', '첫째', '둘째', '셋째', '다음으로' 등의 담화 표지를 활용하여 발표 내용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2.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에서 '학생 5'는 부장의 발표를 들은 후 독서 토론 노트의 필요성을 실감하며 독서 토론 노트를 실제로 사용해 봐야겠다는 반응을 보인다. 이는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공감하고자 하는 듣기 전략에 해당한다. 따라서 '발표자가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며 들었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학생 1'의 생각은 발표자가 설문 조사 결과로 제시한 동아리의 문제점에 대해 동의하는 내용이므로 발표 동기에 공감하는 듣기 전략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학생 2'의 생각은 발표자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발표 주제를 선정하고 준비했다는 점을 고려한 반응이므로 발표자의 준비 상황을 추리하는 듣기 전략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학생 3'의 '~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발표에 사용된 설문 자료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므로 신뢰성을 점검하는 듣기 전략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학생 4'의 생각은 발표의 내용이 독서 토론 노트의 긍정적 효과에만 한정된 것에 주목한 것이므로 편향성 여부를 평가하는 듣기 전략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3~5]

3. 말하기 방식 추론

정답해설 : 방송 대담에서 진행자는 해설가의 발언에 대해 ‘네, 정말 멋진 산수화네요.’, ‘제가 어릴 때 듣던 대중가요네요.’라고 맞장구를 치며 공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설가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 진행자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진행자의 발언 중 ‘소나무가 아닌가요?’, ‘소나무인가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진행자의 두 번째 발언, ‘네, 정말 멋진 산수화네요. ~ 더 기대가 되는데요.’에 나타나 있다. ④ 진행자의 발언 중 ‘굽은 모습 때문이라니 ~ 어떤 의미인가요?’, ‘의외네요. ~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진행자의 발언 중 ‘아, 소나무의 아름다운 외형과 그것에 부여된 상징적 의미 때문이라는 말씀이지요?’를 통해 알 수 있다.

4. 화법의 성격과 요소 파악

정답해설 : 공적 담화는 공적 인간관계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존중을 표현할 수 있는 규범적인 언어 사용을 중시한다. 텔레비전 방송 대담은 공적 담화의 성격이 강하며, 불특정 다수의 청자인 시청자를 의식하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기>와 같은 사적 담화에 비해 경어적 언어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텔레비전 방송 대담은 정해진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적 담화인 <보기>에 비해 시간상 제약이 많다고 할 수 있다. ③ 사적 담화인 <보기>는 공적 담화인 방송 대담에 비해 형식이나 절차가 자유로운 편이다. ④ <보기>는 자매가 방송 대담을 시청한 후 자유롭게 나누는 대화이므로 특정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담화로 보기 어렵다. ⑤ ‘복수의 가상적 청자를 의식하고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활동’은 방송 대담에만 해당되는 설명이다.

5. 매체 활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해설가가 버드나무 영상을 보여준 의도는, 소나무와 대비되는 버드나무의 예술적 가치를 부각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고향을 연상케 하는 시냇가 버드나무의 이미지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대담의 도입 부분에서 ㉠‘그림(산수화)’을 보여 준 것은 ‘나무와 문화 예술’이라는 화제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② 해설가의 ‘표를 보면 ~ 소나무가 두 배 정도 많이 출현했습니다.’라는 발화를 통해 ㉡‘표’가 설명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해설가의 발언 중 ‘나무의 굽은 모습이 보이시나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와 ‘전통 조형의 아름다움은 ~ 적합하죠.’ 등을 통해 ㉢‘사진’의 사용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④ 해설가가 ‘이번엔 노래를 한 곡 ~ 잘 들어 보세요.’라고 발언한 것으로 보아 ㉣‘음악’을 들려준 의도가 ‘그림’ 속의 나무에서 ‘음악’ 속의 나무로 화제가 전환됨을 알리고자 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6~8]

6. 작문 계획의 적절성

정답해설 : (가)에는 똑똑 우체통을 사용할 때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똑똑 우체통 사용 시 유의 사항을 알려 줘야지.’라는 생각은 (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학생 자치회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기에 매일 우체통을 확인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빠르게 수렴하고 신속하게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에서 똑똑 우체통의 장점을 알려 주고 있다. ③ ‘우체통에 넣어 주신 이야기는 학생 자치회에서 선별하여 학교 누리집과 교내 게시판을 통해 공지하며 여러분의 의견에 대한 처리 과정과 결과도 학교 누리집을 통해 알려 드립니다.’에서 똑똑 우체통의 운영 방식에 대해 알려 주고 있다. ④ ‘똑똑 우체통은 문을 똑똑 두드리면 문이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의견을 제시하면 ‘똑똑하게’ 반응하는 우체통이란 뜻입니다.’에서 똑똑 우체통의 뜻을 설명하고 있다. ⑤ ‘똑똑 우체통을 잘 활용한다면 편안하고 즐거운 학교, 학생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에 똑똑 우체통의 기대 효과가 제시되어 있다.

7. 글쓰기 전략

정답해설 : ‘실내화 착용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전체 학생의 50% 정도가 실내화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실내화를 신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갈아 신는 것이 귀찮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에서 실내화 착용 현황과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설문 결과가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설문 조사 결과는 실내에서 실내화를 착용하자는 건의 내용의 신뢰성을 높여 주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실내화 착용의 이로운 점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② 학생 대부분이 실내화 착용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실내화 착용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의견이나 사례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실내화 착용에 대한 학생들의 실천을 촉구하고 있을 뿐, 실내화 착용의 생활화를 위한 학교 차원의 지원책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저 역시 흙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 수업 시간에 늦은 적이 있었습니다.’에 글쓴이의 경험이 제시되어 있다. ‘계단이나 복도에 흙이 많이 떨어져 있어 그곳을 청소하는 학생들이 고생을 합니다.’에 계단이나 복도를 청소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이 나타나 있지만, 그들의 의견을 인용한 것은 아니다.

8. 고쳐 쓰기의 적절성

정답해설 : 글쓴이는 실내에서 실외화를 신는 것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교실 청결, 호흡기 건강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이어서 제시된 계단이나 복도 청소의 어려움 역시 실외화 착용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또한’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는 앞의 문장과 상반되는 내용을 연결하기에 적합하므로 ㉠을 ‘그러나’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악영향’에는 이미 ‘나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나쁜 악영향’은 의미가 중복된 말이다. 따라서 ‘나쁜 영향’으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서술어 ‘끝내지 못해’의 목적어가 빠져 있으므로 ‘청소를’을 첨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이 글은 실내에서의 실외화 착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내화 착용을 촉구하는 글이므로, 청소 도구 확보 문제는 핵심 논지에서 벗어난 내용이다. 따라서 이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이처럼 학생 대부분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을 고려할 때, ㉠이 앞 문장보다 먼저 제시되도록 순서를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9~10]

9. 작문의 성격 파악

정답해설 : (가)의 ‘글의 구성과 표현 전략’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하기보다는 아래와 같이 글을 구성해야겠다.’라고 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 방식을 취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예상 독자를 ‘교지를 읽을 학교 친구들’로 한정하고 이에 따라 (나)를 작성하였다. 이는 작문이 예상 독자를 고려한 행위임을 보여 준다. ② (가)의 ‘자료 수집’에서 잡상의 특징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나)에는 잡상의 다양한 형상이나 잡상을 지붕 위에 올리는 이유 등 잡상과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작문은 글감과 관련된 내용을 생성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③ (가)의 ‘글의 구성과 표현 전략’에서 ‘정의’와 ‘예시’의 방법을 활용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나)의 첫 단락에서 ‘정의’의 방법으로 잡상에 대해 밝히고 있으며, ‘봉황, 용, 해태’나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등 예시를 들고 있다. 따라서 작문은 글쓰기가 정보 제시 방법을 고려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⑤ (가)에서 계획된 ‘잡상을 잘 모르는 학교 친구들에게 소개하여 잡상의 문화적 가치를 알려야겠다.’라는 ‘글 쓰는 목적’에 따라, (나)에서 잡상을 소개하고 그 문화적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작문은 목적을 고려하여 글을 쓰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10.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정답해설 : ㉠에서 (나)의 마지막 단락은 잡상의 가치를 제시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직유법을 활용할 것을 계획하였다. ①에서 ‘길가의 들꽃처럼’에서 직유법을 활용하였고, ‘잡상은~소중한 문화유산’에서 잡상의 가치를 드러냈으며, ‘이런 문화유산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요구하며 끝맺고 있으므로 ①은 ㉠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열병식을 하듯이’에 직유법이 사용되었고, ‘선조들의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에 잡상의 가치가 나타나 있으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마치~엿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에 직유법이 사용되었고, ‘궁궐의 비밀을 전해 주는 것’에서 잡상의 가치가 담겨 있으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요

구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조화의 정신을 보여 주는 문화유산’에 잡상의 가치가 제시되어 있으나 직유법이 사용되지 않았고,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이웃을 사랑하는 선조들의 정신이 깃들여 있습니다.’에 잡상의 가치가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온고지신’의 자세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고 있으나 직유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11. 음절의 개념, 특성 파악

정답해설 : 우리말 음절의 초성 자리에는 자음이 둘 이상 오지 못한다. 제시된 자료 중 ‘끼’, ‘딸’의 ‘ㄱ’, ‘ㄷ’는 각각 된소리에 해당하는 하나의 자음이다. 참고로, 영어에서는 ‘strike’처럼 초성에 해당하는 자리에 ‘str’과 같이 둘 이상의 자음이 오기도 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중성 자리에는 모음이 오는 것을 네 유형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ㄷ과 ㄹ 유형에서 종성 자리에는 자음이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ㄱ 유형은 초성과 종성이 없이 중성으로만 이루어진 음절이며, ㄷ 유형은 초성이 없는 음절, ㄴ 유형은 종성이 없는 음절이라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네 유형 모두에 종성이 포함되어 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2. 각 품사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격 조사와 보조사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격 조사와 보조사를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정답은 ③으로, ‘친구한테’의 ‘한테’는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에게’보다 구어적인 말로, 부사격 조사에 해당한다. ‘한테’는 다른 문장 성분에는 쓰일 수 없는데, 예를 들어 ‘내가’를 대신하여 ‘나한테’를 쓰면 해당 문장 성분의 격이 주격에서 부사격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한테’는 부사격 조사로만 쓰이는 격 조사에 해당하며 보조사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밤에만’의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② ‘오늘은’의 ‘은’은 ‘선수들은’, ‘간식은’과 같이 다른 문장 성분에도 쓰일 수 있으므로 보조사에 해당한다. ④ ‘악기도’의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⑤ ‘책으로까지’의 ‘까지’는 ‘도’와 비슷한 의미를 지녀,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13. 피동사와 사동사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에서는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사동사와 피동사를 올바르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정답은 ⑤로, ㉠‘형이 친구에게 꽃다발을 안기다’의 ‘안기다’는 사동사이며, ㉡‘아기 품이 어미 품에 안기다’의 ‘안기다’는 피동사이다. 참고로 ‘품에 안기다’의 경우에도 ‘할머니가 아기를 어머니 품에 안기다’의 ‘안기다’도 사동사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운동화 끈을 풀다’, ‘피로를 풀다’와 비교할 때 ㉠ ‘운동화 끈이 풀리다’의 ‘풀리다’와 ㉡ ‘피로가 풀리다’의 ‘풀리다’는 모두 피동사이다. ② ‘엄마가 아이를 등에 업다’와 비교할 때 ㉢ ‘아이가 엄마 등에 업히다’의 ‘업히다’는 피동사이며, ‘이모가 아이를 업다’와 비교할 때 ㉣ ‘누나가 이모에게 아기를 업히다’의 ‘업히다’는 사동사이다. ③ ‘옷이 마르다’와 비교할 때 ㉤ ‘옷을 말리다’의 ‘말리다’는 사동사이다. ㉥의 ‘말리다’는 ‘다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어떤 행동을 못하게 방해하다’의 뜻을 지니며 피동사도 아니고 사동사도 아니다. ④ ‘몸이 녹다’, ‘고드름이 녹다’와 비교할 때 ㉦ ‘새들이 몸을 녹이다’의 ‘녹이다’와 ㉧ ‘햇살이 고드름을 녹이다’의 ‘녹이다’는 모두 사동사이다.

14. 띄어쓰기 탐구와 적용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제시된 ‘확인 사항’에 따라 ㉠, ㉡, ㉢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탐구하고 그에 따라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확인 사항’에서 ‘단어는 사전에 표제어로 실린다.’라고 하였으니, ㉠으로 분류되는 ‘살아가다’는 하나의 단어임을 알 수 있다. 하나의 단어는 그 내부에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다’로 적어야 한다. 또한, ‘확인 사항’에서 ‘-아’와 ‘-아서’가 교체 가능할 때에는 ‘본용언 + 본용언’의 구성이라 하였으며, 본용언은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두 개의 본용언은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받아서 가다’가 가능한 ㉡의 ‘받아가다’는 ‘본용언+본용언’의 구성이며 ‘받아 가다’로 띄어 써야 함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의 ‘땀아가다’는 ‘땀아서 가다’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한 단어이거나 ‘본용언 + 보조 용언’ 구성이다. 그런데 만일 ‘땀아가다’가 한 단어라면 사전에 표제어로 실렸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땀아가다’는 ‘본용언 + 보조 용언’의 구성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조 용언은 띄어 쓰음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도 허용한다.’라는 ‘확인 사항’에 따라 띄어 쓴 ‘땀아 가다’와 붙여 쓴 ‘땀아가다’가 모두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할 때 ㉠, ㉡, ㉢의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한 것은 ㉠이다. **정답 ①**

15. 문맥에 따른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담화 속에 쓰인 지칭어와 호칭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담화 상황 속에서 지시 대상, 화자, 청자의 관계를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정답은 ②이다. ‘㉠김 서방’은 할머니(화자)가 고모(청자)에게 고모부(지시 대상)를 가리키는 말이며, ‘㉡아가씨(지시 대상)’는 엄마(화자)가 고모(청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때, ②의 진술과 같이, 청자는 고모로 동일하고 화자는 할머니와 엄마로 다르다. 그렇지만 ㉠은 고모부를, ㉡은 고모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된 것은 아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김 서방’은 할머니(화자)가 고모(청자)에게 고모부(지시 대상)를 가리키는 말이며, ‘㉢그이’는 고모(화자)가 할머니(청자)에게 고모부(지시 대상)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화자와 청자가 맞바뀌어 동일한 인물을 다르게 표현함을 알 수 있

다. ③ ‘㉠김 서방’은 할머니(화자)가 고모(청자)에게 고모부를 가리키는 말이며, ‘㉡고모부’는 고모(화자)가 은미(청자)에게 고모부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화자도 다르고 청자도 달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됨을 알 수 있다. ④ ‘㉢그이’는 고모(화자)가 할머니(청자)에게 고모부를 가리키는 말이며, ‘㉣고모부’는 고모(화자)가 은미(청자)에게 고모부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화자는 같지만 청자가 달라져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됨을 알 수 있다. ⑤ ‘㉤아가씨’는 엄마(화자)가 고모(청자)를 가리키는 말이며, ‘㉥고모’는 은미(화자)가 고모(청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화자가 달라 동일한 청자가 다르게 표현됨을 알 수 있다.

[16~19] 예술, ‘작가주의’

지문해설 : 이 글은 1950년대 프랑스의 영화 비평계에서 새롭게 등장한 작가주의 비평을 설명하고 있다. 작가주의는 당시의 상투적인 프랑스 영화에 반발하여 감독을 ‘작가’로 간주하고, 감독 개인의 영화적 세계와 독창적인 스타일을 일관되게 투영하는 작품들을 옹호하였다.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은 가장 산업화된 할리우드에서 생산된 상업 영화에서도 감독 고유의 표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보고, 히치콕이라는 할리우드 감독을 복권시키기에 이른다. 이처럼 할리우드 영화의 재평가에 큰 영향을 끼쳤던 작가주의의 영향력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에 의해 발견된 ‘좋은’ 영화와 ‘위대한’ 영화들은 교육 현장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주제] 작가주의의 개념 및 영화사적 의의

16. 글의 구조 파악

정답해설 : 윗글은 1문단에서 작가주의의 개념을 설명하고, 3~5문단에 걸쳐 작가주의에서 비평의 대상으로 삼아 재평가했던 할리우드 영화와 히치콕 감독을 예로 들고 있다. 또 6문단에서 작가주의의 영향력과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윗글은 작가주의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다. ② 윗글에서는 작가주의의 문제점이 제시되지 않았다. ③ 윗글에서는 작가주의와 대립하는 비평 이론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⑤ 6문단에서 할리우드 영화의 재평가에 큰 영향을 끼쳤던 작가주의의 영향력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윗글에서 그 영향력을 분석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점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17.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5문단에서 ‘맥거핀’ 기법은, 히치콕 감독이 관객의 오인을 부추겨 자신만의 이야기 법칙을 만들어 가는 데 활용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기법은 특정 소품을 맥거핀으로 활용하여 확실한 단서처럼 보이게 한 다음 일순간 허망한 것으로 만들어 관객을 당혹스럽게 하는 극적 장치이다. 따라서 관객에게 사건의 배경을 극적으로 제시해 주는 촬영 기법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6문단에서 작가주의로 인해 ‘좋은’ 영화 혹은 ‘위대한’ 감독들이 선정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작가주의는 좋은 영화와 위대한 감독을 선정하는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③ 1문단에서 작가주의는 당대 프랑스 영화에 만연했던 문학적, 연극적 색채에 대한 반발로 주장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할리우드 영화의 제작자가 감독의 작업 과정에도 관여하게 된 이유는 흥행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면서 일정한 품질의 영화를 생산하기 위해서라고 언급하고 있다. ⑤ 3문단에서 할리우드에서는 제작 인력들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표준화·분업화한 방식으로 영화를 제작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18.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서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은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감독 고유의 표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보았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이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감독의 개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관객의 변덕스런 기호는 계량화가 불가능한 창작자의 재능과 더불어 영화 흥행의 변수로 제시되어 있다. ② 2문단에서 작가주의는 상투적인 영화가 아닌 감독 개인의 영화적 세계와 독창적인 스타일을 일관되게 투영하는 작품들을 옹호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4문단에서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은 할리우드라는 가장 산업화된 조건에서 생산된 상업적인 영화에서도 감독 고유의 표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보았다고 언급하였다. ③ 5문단에서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에 의해 히치콕이라는 할리우드 감독이 복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히치콕의 작품들에 숨어 있는 흥행의 공식을 영화 제작에 활용하였는지의 여부는 뒷글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⑤ 4문단에서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이 할리우드 영화를 재평가한 결과 B급 영화와 그 감독들마저 수혜자가 되기도 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19. 글쓴이의 의도, 관점 평가

정답해설 : 뒷글의 ㉠이 감독을 ‘작가’로 간주하여 작품과 감독을 동일시하는 반면, <보기>의 ㉡은 감독을 영화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에 비해 감독의 역량을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역량보다 중시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②, ③ 1, 2문단에 따르면, ㉠은 감독을 ‘작가’로 간주하고 작품과 감독을 동일시하여 감독 개인의 영화적 세계와 독창적인 스타일을 일관되게 투영하는 작품들을 옹호한다. ④ ㉡은 제작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역량이나 예산 같은 제작 여건과 영화의 표현 가능성을 확장시킨 기술의 발달 등도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20~21] 기술, ‘조명 기구의 발광 효율과 수명’

지문해설 : 이 글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조명 기구의 구조와 발광 원리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달라지는 발광 효율과 수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기 조명 기구는 발광 효율을 높이고 수명을 늘리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는데, 제시문에서는 ‘백열전구

→ 형광등 → 발광 다이오드'의 순으로 제시되고 있다. 백열전구는 필라멘트를 직접 가열하기 때문에 열의 형태인 적외선의 방출이 많아 발광 효율이 아주 낮고 수명도 짧다. 열전자가 수은 입자와 충돌하여 발생한 자외선이 형광 물질을 자극하여 빛을 내는 형광등은 백열전구에 비해 발광 효율이 높고, 수명도 길다. p형, n형 두 종류의 반도체를 접합한 발광 다이오드는 필라멘트와 같은 가열체가 없어 형광등에 비해 발광 효율이 높고 수명도 길다.

[주제] 조명 기구의 구조와 발광 원리에 따른 발광 효율과 수명

20.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글에 제시된 사실적 정보들을 파악하는 문제는 대체로 글에 드러난 정보를 크게 변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정보에 대한 부분을 찾아 진위를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 3문단에서는 '필라멘트에서 방출된 열전자가 수은 입자와 충돌하면 자외선이 발생한다. 이 자외선이 형광등 안쪽에 발라진 형광 물질에 닿으면 빛으로 바뀐다.'로 형광등의 발광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원래 원통형 유리관 속에 들어있던 수은 입자가 필라멘트에서 방출된 후 형광 물질을 자극하여 빛을 만든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의 '필라멘트에서 일부 에너지가 전자기파의 형태로 방출된다. ~ 이 중 빛은 10% 정도이고 나머지는 열의 형태인 적외선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2문단의 백열전구가 '둥근 유리구 안에 필라멘트를 넣고 불활성 기체를 넣은 단순한 구조'임에 비해, 3문단의 형광등은 '원통형 유리관 내에 수은과 불활성 기체가 들어 있고 양 끝에 필라멘트가 붙어 있는 구조'로 구조가 더 복잡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 3문단에서 형광등은 필라멘트의 가열 온도를 낮출 수 있어 백열전구보다 '수명도 5~6배 정도 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 3문단의 '자외선이 형광등 안쪽에 발라진 형광 물질에 닿으면 빛으로 바뀐다. 이때 형광 물질의 종류에 따라 빛의 색이 달라지기도 하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의 '전자는 그 전압 차만큼의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한다. ~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정해지면서 발광 다이오드에서 나오는 빛은 하나의 색을 띠게 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1. 중심 화제 파악

정답해설 : 글의 중심 화제인 '발광 효율'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이다.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조명 기구는 발광 효율을 높이고 수명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 소비 전력이 빛으로 변환되는 비율인 발광 효율은 발광 다이오드가 가장 높고 형광등이 그 다음이며, 백열전구가 가장 낮다. 마지막 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필라멘트와 같은 가열체가 없는 발광 다이오드는 필라멘트가 붙어 있는 형광등에 비해 에너지의 손실이 작아 발광 효율이 높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백열전구는 전구에 투입되는 전력의 대부분이 열의 형태인 적외선으로 방출되어 형광등에 비해 발광 효율이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2

문단의 ‘전구에 가해지는 전압을 높여 필라멘트의 온도를 높이면 빛의 비율은 높아’진다는 것에서, 수명을 늘리기 위해 필라멘트의 가열 온도를 낮추면 발광 효율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의 ‘형광 물질의 종류에 따라 빛의 색이 달라지기도 하고 자외선을 빛으로 바꾸는 변환 효율이 다르므로 형광등의 발광 효율에도 영향을 준다.’에서 형광등에 사용하는 형광 물질의 종류를 바꾸면 발광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④ 1문단에서 ‘발광 효율은 소비 전력이 빛으로 변환되는 비율’이라고 했기 때문에 작은 소비 전력으로 같은 양의 빛 에너지가 나온다면 발광 효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2~25] 인문, ‘고고학의 유물 자료 해석’

지문해설 : 이 글은 토기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예로 들어 발굴을 통해 얻은 유물을 해석하는 다양한 고고학적 접근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진화고고학에서는 진화론에 기초하여 토기의 변화를 설명하였으나, 세밀한 연대 측정 기술에 힘입어 보다 정확한 정보가 확인되자 생태학적 이론에 입각한 설명, 유물이 사용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강조한 설명 등과 같은 새로운 해석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단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과거 인간의 삶을 복원하고자 하는 고고학은, 그 특성상 발굴을 통한 유물 자료가 빠르게 축적되고 새로운 측정 방법이 개발됨에 따라 다양한 자료 해석이 제시된다. 따라서 고고학에서는 다양한 해석을 하고자 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주제] 유물 자료를 해석하는 고고학의 연구 방법 및 특징

22.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고고학자들은 세밀한 연대 측정을 통해 토기 두께가 4세기경 급작스럽게 변화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과, 전분 함량이 높은 음식이 보편화된 것이 5세기 이후부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연대 측정 기술의 발달 덕분에 고고학자들이 이전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물에 대한 연대 측정 기술이 발달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발굴되는 유물의 양이 늘어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는 토기 두께가 얇아지고 곡물의 전분 함량이 증가한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진화고고학적인 해석이, 4문단에서는 두께가 얇은 토기가 오랫동안 사용되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생태학적 설명이, 5문단에서는 4세기경에 토기의 두께가 급격히 얇아졌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사회문화적 접근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고고학은 유물로부터 얻은 정보를 축적하여 다양한 해석을 시도한다고 할 수 있다. ② 1문단에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통해 얻은 유물 자료에는 과거 인간의 삶에 관한 극히 단편적인 정보가 남아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3문단에 따르면, 세밀한 연대 측정 결과 토기의 두께가 점진적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라 4세기경 급작스럽게 변화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과, 전분 함량이 높은 음식이 보편화된 것은 5세기 이후부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4문단에서는 이러한 사실

중 두께가 얇아진 토기가 장기간 사용된 이유를 생태학적 이론에 입각하여 설명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고, 5문단에서는 4세기경에 토기의 두께가 급격히 얇아지는 이유를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설명하려는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개선된 측정 방법으로 유물의 정보를 세밀하게 분석하면 새로운 고고학적 해석이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진화고고학은 진화론에 초점을 맞추어, 4문단에서 생태학적 설명은 생태학적 이론에 입각하여 과거를 설명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5문단에서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유물의 의미를 설명하려는 관점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고고학은 부분적인 정보가 들어 있는 유물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야의 이론을 활용한다고 할 수 있다.

23.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토기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는 토기에 탄화된 채로 남아 있던 식재료에 사용된 곡물의 전분 함량을 조사했다. 그 결과 후대로 갈수록 곡물의 전분 함량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므로 토기로 조리한 음식의 종류는 당시의 자연 환경을 추측하여 알아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두께가 얇은 토기는 상대적으로 열을 더 잘 전달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우수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토기의 두께가 얇을수록 열전도율은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곡물의 전분 함량이 증가하여 토기 두께가 얇아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곡물의 전분 함량 변화가 토기의 두께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진화고고학은 토기 두께가 얇아진 이유를 전분이 좀 더 많은 씨앗의 출현이라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토기 두께의 변화는 자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전분 함량이 높은 씨앗은 그 특성상 오래 가열해야 하므로 열전도가 빠른 토기가 사용되었다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전분이 많은 씨앗을 조리하는 데에는 토기의 두께가 얇을수록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24. 생략된 정보 추론

정답해설 :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유물의 의미를 설명하려는 관점에서는 개개의 유물이 사용된 맥락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 유물을 사용한 사람의 사회적 위치와 기호 변화 등의 요인들에 주목한다. 이같은 관점으로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번이다. 사람들이 새로운 토기를 선호하게 된 일은 사람들의 기호 변화에 해당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자연 환경의 변화로 인해 두께가 얇은 토기가 생존에 유리해졌다고 보는 것은 두께가 얇은 토기 제작을 자연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한 선택으로 여기는 진화고고학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거주 지역을 옮기면서 주위 환경이 바뀌어 토기를 만드는 재료가 달라졌다고 보는 것은 인간의 삶을 자연 환경에 더욱 잘 적응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여긴 진화고고학의 관점에 따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식

량을 채취하는 여건이 악화되면서 토기 제작에 쏟을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었다고 보는 것은 인간의 능동적 선택을 강조한 생태학적 설명으로 볼 수 있다. ④ 기후의 변화로 주요 식재료가 바뀌면서 음식을 조리하기에 편리한 토기를 만들었다고 보는 것은 인간의 이성적 사유 능력에 따른 선택 과정에 주목한 생태학적 설명으로 볼 수 있다.

25.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축적(蓄積)되다’는 ‘지식, 경험, 자금 따위가 모여서 쌓이다.’라는 말이므로 ④는 ‘나타나고’가 아니라 ‘쌓이고’와 바꿔 쓸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증가(增加)하다’는 ‘양이나 수치가 늘다.’라는 말이므로 ㉠는 ‘늘어난다’는 ‘과’ 바꿔 쓸 수 있다. ② ‘초래(招來)하다’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하다.’라는 말이므로 ㉡는 ‘일으킨’과 바꿔 쓸 수 있다. ③ ‘단축(短縮)되다’는 ‘시간이나 거리 따위가 짧게 줄어든다.’라는 말이므로 ㉢는 ‘짧아짐에’와 바꿔 쓸 수 있다. ⑤ ‘집착(執着)하다’는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리다.’라는 말이므로 ㉤는 ‘엮매이는’과 바꿔 쓸 수 있다.

[26~27] 과학, ‘원유의 열처리’

지문해설 : 이 글은 유해 미생물이 들어 있는 원유를 우리가 마시는 우유로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열처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생물은 가열 온도가 높을수록, 가열 시간이 길수록 그 수가 감소하게 되는데,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열처리에 필요한 온도와 시간이 다르다. 미생물에 따른 열처리 시간과 온도는 D값과 Z값으로 표현한다. D값은 미생물을 1/10로 줄이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 Z값은 D값의 1/10의 시간으로 미생물을 1/10로 줄이기 위해 추가로 높여야 하는 온도를 말한다. 실제 원유의 열처리에는 낮은 온도에서 살균 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이용한 ‘저온살균법’과 살균 시간을 줄이는 대신 온도를 높이는 방법을 이용한 ‘저온순간살균법’이 있다. 그리고 열에 대한 저항성이 큰 종류의 미생물까지 제거하여 장기간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초고온처리법’도 있다.

[주제] 미생물 제거를 위한 원유의 열처리 원리와 방법

26.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서 초고온처리법은 저온살균법이나 저온순간살균법으로 처리해도 죽지 않는 미생물까지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초고온처리법을 사용했을 때는 저온순간살균법을 사용했을 때보다 더 적은 수의 미생물이 남는다고 할 수 있다. 초고온처리법으로 살균한 우유가 1개월 이상 장기 유통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미생물 개체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원유를 가공하지 않았을 경우 유해 미생물이 빠르게 증식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하였으므로, 원유는 유해 미생물 성장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4문단에서 저온살균법이나 저온순간살균법으로 처리한 우유가 냉장 상태에서 유통 기간이 5일 정도인데, 초고온처리법을 사용한 우유는 1개월 이상 장기 유통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③ 2문단에서 가열 온도가 높을수록, 가열 시간이 길수록 미생물의 수가 더 많이 감소한다고 하였으므로,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수의 미생물을 제거하려면 열처리 온도를 높여야 함을 알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저온살균법으로는 미생물을 99.999% 제거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4문단에서 이 방법으로는 열에 대한 저항성이 큰 미생물은 제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27.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D값은 특정 온도에서 미생물 수를 1/10로 줄이는 데 걸리는 시간이며, 2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열처리 시간을 D값의 2배로 늘리면 미생물 수는 1/100로 줄어든다. <보기>에서 A는 D값이 5초이므로 60°C에서 5초 동안 열처리를 하면 미생물 수는 100개가 된다. 그리고 같은 조건에서 D값의 2배인 100초 동안 열처리를 하면 미생물의 수는 1/100인 10개가 된다. B도 D값이 A와 동일하므로 60°C에서 100초 동안 열처리를 하면 미생물의 수는 10개가 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Z값이 높은 미생물은 더 높은 온도에서 제거되기 때문에 열에 대한 내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같은 5초 동안 열처리를 했을 경우 Z값이 5°C인 B는 65°C에서 1/10로 줄어들지만, Z값이 10°C인 A는 70°C까지 높여야 1/10로 줄어든다. 그러므로 65°C에서 같은 시간 동안 열처리를 했을 경우 남아 있는 개체 수는 A가 더 많다. ③ B는 65°C에서 5초 동안 열처리를 하면 1/10로 줄어들고, A는 70°C에서 5초 동안 열처리를 하면 1/10로 줄어든다. 그러므로 70°C로 열처리를 했을 경우 B는 A보다 오래 견디지 못한다. ④ A, C 모두 D값의 1/10인 5초 동안 열처리를 했을 경우 A는 70°C에서 1/10이 된다. C도 5초 동안 열처리를 하면 70°C에서 1/10이 된다. 그러므로 70°C에서 5초 동안 열처리를 하면 A와 C의 개체 수는 같게 된다. ⑤ Z값의 정의에 따라 B를 65°C에서 5초 동안 열처리를 하면 1/10인 100개가 남게 된다. C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70°C에서 5초 동안 열처리를 하면 1/10인 100개가 남는다.

[28~30] 사회, '인센티브 계약의 두 가지 방식'

지문해설 : 이 글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서의 인센티브 계약을 명시적 계약과 암묵적 계약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글이다. 이 글은 인센티브 계약의 방식에 따라 기업의 이윤 측면에서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인과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인센티브 계약은 기업이 제공하는 보상과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력의 상관성을 높이기 위해 맺는 약속을 말하는데, 명시적 계약과 암묵적 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명시적 계약은 강제성이 있으며 객관적인 조건에 기초하는데, 이에 따라 기업이 고정급 이외의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하더라도 기업의 이윤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명시적 인센티브 계약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근로자 소득의 불확

실성 증가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추가될 수 있고, 그 결과 기업 이윤이 감소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인센티브 왜곡의 문제로, 근로자가 보상 가능한 성과에만 집중하고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결과, 기업의 이윤은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기초하여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도입된다. 암묵적 방식의 인센티브는 주관적인 평가로 이루어지고 장기적 이익과 신뢰의 상호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특징이 있다. 기업과 근로자는 이러한 인센티브 방식들의 특징을 고려하여 기업과 근로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주제] 인센티브 계약의 두 가지 방식 - 명시적 계약과 암묵적 계약

28.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3문단의 '성과 측정이 어려워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업무를 근로자들이 등한시하게 되면 ~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로 볼 때,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업무에서 (객관적인 성과를 강조하는) 명시적인 인센티브가 효과적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의 '기업과 근로자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받는 보상에 근로자의 노력이 반영되도록 하는 약속이 인센티브 계약이다.'에서,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이해 상충 문제가 근로자의 노력을 반영하는 보상을 통해 완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2문단의 '명시적 계약은 법원과 같은 제3자에 의해 강제되는 약속'에서 명시적 인센티브 계약이 법의 보호 대상임을 알 수 있고, 3문단의 '명시적 인센티브 계약이 ~ ∞ 가 커짐에 따라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기도 한다'에서 명시적 인센티브 계약이 기업에 해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의 '근로자의 노력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 성과에 기초하여'에서 성과와 달리 노력 자체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의 '합당한 성과 측정 지표를 찾기 힘들고 ~ 경우에는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주관적 평가에 기초한 암묵적 인센티브 계약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9. 글의 내용 재구성

정답해설 : 4문단의 '합당한 성과 측정 지표를 찾기 힘들고 ~ 경우에는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에서, '암묵적 계약'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 기초한 약속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4문단의 '암묵적 계약은 법이 보호할 수 있는 계약을 실제로 맺는 것이 아니라'와,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에서, 암묵적 계약은 '법원과 같은 제3자가 강제할 수 없는 약속'임을 알 수 있다. ③ 4문단의 '상대방과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일 경우에 자발적으로 ~ 행동하는 것'에서, 암묵적 계약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약속'임을 알 수 있다. ④ 4문단의 '상대방과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과, '신뢰를 잃게 되면 ~

자발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에서, 암묵적 계약은 '신뢰를 잃음으로써 초래되는 장기적 손실이 클수록 더 잘 지켜지는 약속'임을 알 수 있다. ⑤ 4문단의 '단기적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여 협력 관계를 끊더라도'에서, 단기적 이익이 작을수록 암묵적 계약에 따른 협력 관계가 더 잘 유지될 것임을 알 수 있다.

30. 인과 관계, 상관 관계 추론

정답해설 : 2문단의 설명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보상 체계가 '고정급 + α × 성과'일 때, α 는 '인센티브 강도'를 나타낸다. <보기>의 '가'는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α 의 크기가 기업의 이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정리한 것이다. 이때의 α 크기가 갖는 효과는 2문단에 언급되어 있는데, 2문단 끝의 ' α 를 늘리면 ~ 많은 몫을 근로자에게 주더라도 기업의 이윤은 늘어난다'로 볼 때, '가'의 상황에서 α 가 커지면 기업의 이윤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보기>의 '나'는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근로자의 소득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상황에 해당하며, 명시적 인센티브 계약의 첫 번째 문제점에 해당한다. 3문단의 '소득이 불확실해지는 것을 근로자가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은 근로자에게 ~ 추가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와, ' α 가 커지면 ~ 기업의 이윤이 줄기도 한다'에 따르면, '나'의 상황에서는 α 가 커질 때 기업의 이윤은 '감소'한다. <보기>의 '다'는 명시적 인센티브 계약의 두 번째 문제점인 인센티브 왜곡의 상황에 해당한다. 3문단에 따르면, 인센티브 왜곡은 근로자가 (보상이 어려운 노력은 힘쓰지 않고) 보상을 잘 받기 위한 노력에 치중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문단의 '중요하지만 성과 측정이 어려워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업무를 근로자들이 등한시하게 되면 ~ 기업의 이윤이 줄기도 하는 것이다'에서, 인센티브 왜곡이 일어나는 '다'의 상황에서 α 가 커질수록 기업의 이윤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31~33] 현대시 -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작품해설 : 이 시는 '그 복숭아나무'로 비유된 시적 대상에 대해 화자가 처음에는 심리적 거리감을 느꼈으나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야 그 대상에 대해 이해하고 깨달은 뒤 비로소 대상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 복숭아나무'는 마음을 쉽게 알 수 없는, 또는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잘 알지 못했던 어떤 사람(예를 들어 부모님 같은 존재)으로 볼 수 있다. 화자는 가까이 다가간 적도 없으며 그들 밑에서 앉아 본 일도 없다는 식으로 '그 복숭아나무'에 대한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그 복숭아나무'에게서 여러 겹의 마음을 읽게 된다. 여러 겹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의 마음은 수천의 빛깔을 가진 존재로 제시되는데, 화자는 '그 복숭아나무'가 수천의 빛깔을 피우고 싶었으나 피우지 못했기 때문에 외로웠을 것이라는 인식에 이른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수천의 빛깔을 피우고 싶었으나 이를 이루지 못해 외로움을 느꼈을 복숭아나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성숙한 모습을 지니게 된다.

[주제] 복숭아나무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

31.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1연 2행을 보면 화자는 대상을 ‘그 복숭아나무’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는 시적 감흥을 촉발시키는 복숭아나무가 일반적 대상이 아니라 ‘그 복숭아나무’라는 특정한 대상임을 부각하는 효과를 낸다. 시상이 전개될수록 ‘그’라는 지시어는 ‘그 나무’, ‘그 복숭아나무’ 등으로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독자에게 시적 대상이 특정한 ‘그 복숭아나무’임을 끊임없이 환기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이 작품은 규모가 거대하고 성대할 때 조성되는 웅장한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이 시에 사용된 ‘-습니다’라는 경어체 표현은 ‘그 복숭아나무’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차분히 드러내면서 고백적인 어조를 형성하는 데 기능하고 있다. ③ 2연을 도치된 문장으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다. 하지만 작품의 시적 상황은 긴박한 분위기를 띠지 않고 있다. 도치된 문장으로 마무리된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은 시적 여운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④ 이 작품에서 ‘그 복숭아나무’는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화된 대상이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흰꽃’, ‘분홍꽃’ 등에서 색채어 사용을 찾아볼 수 있으나 이것을 신화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2.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D]에서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나타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한 지적이다.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이라는 구절과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이라는 구절에 드러난 ‘그 나무’는 분명 ‘흰꽃’과 ‘분홍꽃’으로만 인식된 ‘그 나무’와 구별되기 때문이다. ‘그 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바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우고 싶은 꽃빛’이라는 구절을 화자가 외로움을 이겨 낸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그 나무’는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것으로 보아 ‘피우고 싶은 꽃빛’은 대상의 이러한 다양한 마음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의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시다’라는 구절에서 ‘그 복숭아나무’에 대해 거리를 두는 화자의 태도를 읽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복숭아나무’가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으로 드러난다. ② [B]에서는 ‘그 복숭아나무’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으로 인해 화자가 그 나무를 피우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 나무의 ‘그늘’에 앉지 않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쳐 가는 모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에 대한 감정이 행동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부분이다. ③ [C]에서 ‘그 복숭아나무’는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을 가진 존재로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B]에서 그 나무는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있는 존재였다. 따라서 [C]는 대상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부분이며, ‘눈부셔’라는 표현은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는 순간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면서 부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⑤ [E]에서 ‘흩어진 꽃잎들’이라고 했으므로 ‘그 복숭아나무’의 꽃잎들은 이제 나무에 피어 있지 않다.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는데, 정작 그 꽃

잎들은 이제 져버린 것이다. 따라서 ‘조금은 심심한 얼굴’은 ‘그 복숭아나무’의 또 다른 모습으로서, 꽃잎이 진 ‘그 복숭아나무’를 가리킨다.

33.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화자가 ‘그 복숭아나무’에 대해 깨닫기 전에는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 복숭아나무’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난 후에는 그 ‘그늘’[㉠]에서 화자가 ‘저녁이 오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다. 따라서 ㉠은 복숭아나무에 대한 화자의 친밀감이 강화되는 장소로 볼 수 있다. ㉡에서 필자는 ‘상이 막히어 붓대가 내키지 않을 때’, ‘생각이 웅색할 때’, ‘피로가 몸에 미칠 때’ 등이면 ‘매듭진 상을 골라서 풀곤 했’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밤나무를 ‘내 생명의 씨를 밝혀 주는 씨앗터’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곳을 ‘떠나 살게 되니’ 밤나무에 대한 그리움이 절실해지고 있다. **정답 ㉠**

[오답피하기] ① ㉠을 화자의 기대에 어긋나는 장소로 파악하기보다는 ㉠에서 화자가 휴식을 취하며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장소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는 필자의 휴식을 방해하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필자에게 안식처를 제공하여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장소이다. ② ㉠에서 화자가 복숭아나무에 대한 거리감을 회복하고는 있으나 이것을 복숭아나무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는 필자가 밤나무에 영향을 주었던 장소가 아니라 밤나무가 필자에게 영향을 주는 장소로 감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는 필자가 밤나무에 대한 글을 썼던 장소가 아니다. ‘직접 이 철학자를 두고 짜여진 것은 아직 한 편도 없으나’라고 서술되어 있다. ④ ㉠은 복숭아나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가 아니다. 이 작품은 복숭아나무가 의인화되어 있으나 복숭아나무의 심리와 행동보다는 이를 바라보는 화자의 심리와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아래에서 필자가 다양한 고민을 해소하고는 있으나 그러한 고민은 밤나무에 대한 것들이 아니다. 필자의 고민은 주로 창작의 고민과 그것으로 인한 피로감에서 오는 것들이다.

[34~38] 현대소설 - 김정한, ‘모래톱 이야기’

작품해설 : 이 작품은 낙동강 하류의 가상의 섬인 ‘조마이섬’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일제 강점기부터 1960년대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 섬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주민들은 자신들의 땅을 이른바 힘 있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빼앗긴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 중학교 교사로 설정된 서술자 ‘나’는 조마이섬에서 나룻배로 통학하는 학생 ‘건우’를 통해서 섬 주민들을 알게 되고, 섬 주민들의 처지와 삶의 내력에 대해 깊은 연민을 갖게 된다. 낙동강에 홍수가 난 상황에서 섬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든 ‘둑’을 허물려 하고, 섬의 법적 소유자는 ‘둑’을 지키려 한다. 그 대립의 과정에서 ‘건우’의 할아버지가 살인을 하고 경찰서로 끌려가면서 사건이 마무리된다.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 권력자들에게 패배하는 섬 주민들의 이야기를 증언함으로써 소수 권력자와 다수의 주민 사이의 대립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조마이섬으로 상징되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본문에 제시된 장면은 서술자 ‘나’가 ‘건우’의 글을 읽고, 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섬 주민들의 삶의 내력을 알아가는 과정에 해당한다.

[주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 대한 고발

34.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서술자는 ‘집 안팎 광경들’을 통해서 ‘건우 어머니’가 ‘꽤 부지런하고 친절 한 여성’임을, 볼록한 이마와 짙은 눈썹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건우 어머니’가 의지나 정열을 지닌 인물임을 추론하고 있다. 따라서 [A]는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을 통해 인물의 성격이 제시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건우’의 집 안팎의 광경은 ‘건우’와 ‘건우 어머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능을 하나, 이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② 서술자가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고 느낀 것을 일상적 소재의 나열로 보기 어렵고, 서술자의 판단 또한 복잡한 심리의 표출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인물의 성격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나, 그 성격 변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⑤ 학교에서의 ‘건우’에 관한 이전 경험을 떠올리고 있기는 하나, 이것을 이후에 전개될 사건에 대한 단서로 보기는 어렵다.

35.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건우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우’의 입성이 깨끗할 정도로 부지런하고 ‘건우’가 공부를 잘해 ‘일류 중학’에 갈 정도로 교육열이 높은 인물이다. ‘일류 중학’은 ‘건우 어머니’와 ‘건우’가 어려운 가정 형편 중에서도 이룩한 성취의 의미에 가깝다. 이것을 ‘모자의 불화’나 ‘교육관의 차이’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건우 어머니’의 ‘손’이 ‘상일(별다른 기술이 없이 하는 노동)’에 거칠어 있는 양’이라 묘사된 데서 그의 고된 생활을 추론할 수 있다. ③ ‘책상’이 ‘사과 껍질 같은 것에 종이를 발라’ 만든 것임을 볼 때, ‘건우’네의 살림살이가 넉넉지 못함을 추론할 수 있다. ④ ‘책 읽은 소감’에 섬 주민들이 ‘지정해 주는 기호’ 밑에 도장을 찍어 투표한다는 책의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정치 현실에 대한 건우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선조 때부터 강물과 싸우며 ‘둑’을 만들어 온 것이라는 ‘건우 할아버지’의 말을 통해 ‘둑’은 조마이섬 사람들의 삶의 내력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6. 원작의 일부 각색, 재구성

정답해설 : <보기>의 시나리오에서, ‘손에 쥔 종이(토지 문서)’를 움켜쥐고 부르르 떠는 ‘건우 증조부(S#98)’와, ‘종이 조각(토지 문서)’을 들고 찾아 온 사람들에 맞서는 ‘건우 할아버지(S#99)’는 자신들의 땅으로 여겼던 조마이섬의 소유권이 부당하게 다

른 곳으로 넘어간 데 대해 분노하고 있다. 나머지 인물들은 그의 말에 동조하거나 경청하고 있다. 제시된 인물 간의 갈등을 찾아볼 수 없으며 소유권 이전에 찬동하는 인물 또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S#98 시작 부분에서 '길게 펼쳐진 조마이섬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 섬의 전체적인 지형을 카메라에 담는 E.L.S. 기법을 쓰고 있다. ② 일제 때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를 수탈한 사실이 작품에서는 서술자의 생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S#99에서는 대사로 제시되어 있다. ③ 내일까지 섬에서 나가라는 '시커먼 놈들'의 요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물의 대사를 통해 관객들은 이후에 생길지 모를 갈등 상황에 대해 긴장감을 느낄 수 있다. ⑤ S#98에서는 '건우 증조부'가 '대명 천지에 이럴 수는 없는 기다!'를 외치고, S#99에서는 '건우 할아버지'가 역시 같은 말을 외치며 자신들의 억울함을 표출하고 있다.

37.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본문의 중략 이후 부분에서는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나'에게 들려 준 이야기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 시작 대목에서 그 이야기가 '언젠가 건우가 써 냈던 <섬 얘기>'에 몇 가지 일화가 붙은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조마이섬'의 두 어른들이 해 준 이야기가 몇 일화를 제외하고 '건우'의 <섬 얘기>와 같다고 해서, 어른들이 '건우'의 글을 원천으로 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서술자가 '건우'의 선생님이 된 것을 계기로 해서 '조마이섬' 사람들을 만나고 아울러 그곳의 어른들에게서 섬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고 해서, '건우'를 '저항적 주체들의 중심인물'로 삼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이 <보기>에서 언급한 저항적 주체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건우'가 그 중심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찾기 어렵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작가는 공동체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나'의 이야기를 창조하였다고 했는데, 본문에서도 '나'는 상대방의 말에서 연관된 역사적 사실을 떠올리거나, 원한과 저주의 깊은 감정을 읽어내는 등 적극적이고도 공감적인 태도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② '건우'가 쓴 <섬 얘기>가 땅의 소유권에 관한 어른들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으로 볼 때, '건우'는 자신의 글로써 섬의 억울한 현실을 기록하고 증언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④ '기막히는 일화'의 '기막히는'은 현실의 부조리함, 어처구니 없음의 뜻에 가깝고, '나'의 이야기에서 그런 일화를 다루는 것은 현실의 부조리한 실상을 드러내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⑤ <보기>에서 언급된, 권력의 횡포에 의해 '뿌리 뽑힌 사람들'은, 작품에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땅을 빼앗긴 섬 사람들로 형상화되었으므로, 이를 통해 작가가 권력의 횡포를 비판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38.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서술자가 작중 인물의 깊은 원한을 헤아리는 상황이다. 각골통한(刻

骨痛恨)이란 ‘뼈에 사무칠 만큼 원통하고 한스러움’을 나타내는 말로 ㉔의 상황을 표현하는 말로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노심초사(勞心焦思):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을 이르는 말. ③ 전전반측(輾轉反側):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을 이르는 말. ④ 풍수지탄(風樹之嘆):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여윈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 ⑤ 후회막급(後悔莫及): 이미 잘못된 뒤에 아무리 후회하여도 다시 어찌할 수가 없음을 이르는 말.

[39~42] 고전소설 - 작자미상, ‘흥부전’

작품해설 : 이 작품은 보은(報恩) 설화가 바탕이 된 ‘흥부가’가 문자로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이다. 표면적으로는 형 놀부와 동생 흥부라는 대조적인 인물을 설정하여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부농과 빈농 사이에 벌어지는 경제적인 갈등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 이는 조선 후기의 신분 변동에 따라 나타난 유랑 농민과 신흥 부농(富農)과의 갈등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설화에서 차용한 모방담(模倣談)으로서의 소설적 구조를 계승하고 있으며, 인물이나 사건을 그려 나가는 방식은 판소리계 소설답게 다분히 서민적이고 해학적인 문체를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문체상의 특징은 이 작품에 나타난 시대적 배경의 심각성이나 비극적 상황을 서민 특유의 건강한 웃음으로 인식, 극복하려는 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 빈부 간의 격차로 인한 갈등

39.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㉔은 놀부의 집에 가는 흥부의 행동과 차림새 등 외양을 묘사한 부분이다. ㉔의 바로 앞 구절은 ‘치장을 볼작시면’이다. 그러므로 ㉔은 흥부의 ‘치장(외양)’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㉔의 내용은 머리에 두른 망건, 도포의 한 종류인 중치막, 도포 끈인 술띠, 바지(고의)와 대님, 짚신, 부채, 자루의 모양과 흥부가 걸어가는 모습 등인데, 이를 차례로 열거하며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이 해학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원래 있어야 할 편자가 없는 망건에, 보통 금·옥·뼈·뿔로 만드는 관자 대신에 박쪼 가리로 만든 관자를 달고 있다. 게다가 망건 윗부분의 당끈은 원래 말총으로 하는데 말총이 아닌 물렛줄로 하였다. 이렇게 격식에도 안 맞고 우스운 모양의 망건을 흥부는 ‘대가리 터지게’ 동여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흥부가 입은 중치막은 깃만 남아 있고, 술띠는 동강을 이어 놓았으며, 고의는 떨어졌고 대님은 첩 노끈인데다가 감발을 하고 흰 짚신을 신은 모습이다. 이렇게 입고는 세살부채를 쥐고 볼품없이 생긴 자루를 꿈무늬에 차고 있다. 그런 상태로 걸어가는 모습이 ‘바람맞은 병인’ 같고 ‘잘 쓰는 대비(빚자루)’ 같은데 게다가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망설이는 모양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인물의 외양을 해학적으로 묘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㉔은 내용 전체가 흥부의 외양 묘사이기 때문에 인물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 ② ㉠은 전체가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와 과거가 교차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은 인물의 외양을 묘사했을 뿐 배경을 묘사하지는 않았다. ⑤ ㉠은 흥부의 외양을 묘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서사 전개 속도는 느낄 수 없다.

40.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C]에서 제비가 ‘황제’에게 놀부를 고발하는 근거가 되는 부분은 [B]에 나타난 놀부의 언행이 아니라 지문의 밑줄 친 ㉠에 나타난 놀부의 행위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의 첫 문단은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서 흥부의 성품을 드러낸 부분이다. 그리고 아내와 흥부의 대화를 통해 흥부가 매우 가난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② ‘놈’이라는 단어는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이를 통해 서술자가 놀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우화’는 인격화한 동식물이나 기타 사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의 행동 속에 풍자와 교훈의 뜻을 나타내는 이야기이다. [C] 부분은 강남으로 돌아간 제비가 황제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 바로 ‘강남’의 황제가 있는 곳이 우화적 공간에 해당된다. ④ [B]에서 흥부는 놀부에게 양식을 꾸어 달라고 애걸하고 놀부는 거절하는 갈등의 상황이 나타난다. [A]의 ‘형님이 음식 끝을 보면 ~ 맞는단 말이오?’와 ‘맞으나 건너가 뵙소’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흥부의 놀부네 방문이 [B]와 같은 갈등 상황이 될 것임을 [A]에서 예고하고 있다.

41.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놀부는 한 짐승(갈가마귀)이 떠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제비 인제 온다.”고 하면서 기대를 하지만 ‘한 짐승(갈가마귀)’는 청천에 높이 떠서 울고 가 버린다. 놀부는 이를 보다가 하릴없어, 즉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제비를 자기 집으로 몰아들이려고 한다. 따라서 답지에 제시된 ‘제비가 아닌 다른 새들을 몰아내는’이라는 ②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동지선달’은 겨울이기 때문에 제비가 올 리가 없다. 올 리 없는 제비를 기다리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동지선달부터 제비를 기다리는 놀부의 행동은 인위적으로 상황을 만들기 위한 행동에 속하며, 이는 ‘더 큰 부자가 되겠다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놀부의 조급성을 보여준다. ③ ‘삼월 삼일’이 되어 제비가 돌아와 옛집을 찾으려 하니 놀부가 사면에 제비집을 지어 놓고 제비를 들이몬다. 이 행위는 인위적으로 상황을 만들기 위한 행동에 속하며, 이 행동은 <보기>에 따르면 ‘악의적으로 모방’하는 것에 해당한다. ④ ‘구월 구일’이 되어 제비가 강남으로 들어가는 상황은, 놀부 입장에서는 제비가 박씨를 물고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다. 이는 놀부가 보상을 기대하지만 상황에 개입할 수 없어서 기다리는 상황, 즉 <보기>의 II 단계에 해당된다. ⑤ ‘보수표’는 지문의 뜻풀이에 나온 것처럼 ‘원수를 갚는 박’으로 원수를 갚아 달라는 제비의 말에 황제가 제비에게 새겨 준 것이다. 이

는 더 큰 부자가 되겠다는 놀부의 욕망에 반하는 것이다. 놀부가 이 상황에 개입할 수 있었다면 ‘보수표’라는 금자가 새겨진 박씨를 심어서 키운 후 타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보수표’가 제비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Ⅱ단계에 해당하며 더 큰 부자가 되고자 하는 놀부의 욕망이 실현될 수 없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42. 관용적 표현의 이해

정답해설 : ‘병 주고 약 준다.’는 속담은 ‘남을 해치고 나서 약을 주며 그를 구원하는 체한다는 뜻으로, 교활하고 음흉한 자의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 놓고(=병 주고) 치료를 해 주며 구해 주는 척하는(=약 주고) 놀부의 행동에 적절한 속담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아무리 놀려 지내는 미천한 사람이나, 순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너무 업신여기면 가만있지 않는다.’는 말이다.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놀부는 ‘놀려 지내는 미천한’ 존재가 아니라 힘없는 제비에게 가해를 한 것이므로 이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속담이다. ② ‘방귀 똥 놔가 성낸다.’는 ‘자기가 방귀를 뀌고 오히려 남보고 성낸다는 뜻으로, 잘못을 저지른 쪽에서 오히려 남에게 성냄을 비꼬는 말.’이다. “가련하다, 이 제비야.”라고 말한 것은 가식적으로 한 말이지 제비에게 성을 내거나 비꼰 것은 아니다. ③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은 ‘강한 자들끼리 싸우는 통에 아무 상관도 없는 약한 자가 중간에 끼어 피해를 입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구렁이를 대신하여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놀부가 ‘약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속담이다. 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은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다. “가련하다, 이 제비야.”라고 말한 것은 가식적으로 한 말일 뿐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결하는 말은 아니다. 또한 다리가 부러진 제비가 황제에게 받은 박씨는 원수를 갚는 박씨이므로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속담이다.

[43~45] 고전시가 - 이정보, ‘국화(菊花)야 너는~’ / 이조년,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 최치원, ‘촉규화(蜀葵花)’

(가) 이정보, ‘국화(菊花)야 너는~’

작품해설 : (가)는 낙엽이 떨어지는 추운 겨울에 홀로 피는 국화를 지사(志士)의 절개에 비유하여 예찬하고 있는 작품이다. 국화를 의인화하여 국화에 인간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꽃을 피우기 좋은 조건으로서의 ‘삼월동풍(三月東風)’과 춥고 외롭고 척박한 환경으로서의 ‘낙목한천(落木寒天)’을 대비하여 서릿발에도 굴하지 않고 외롭게 피는 국화의 고고한 절개[오상고절(傲霜孤節)]를 돋보이게 하여 칭송하고 있다.

[주제] 국화(선비)의 높은 지조와 절개 예찬

(나) 이조년,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작품해설 : (나)는 봄밤의 풍경을 보며 느끼는 애상과 우수의 정서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이미지를 통한 정서의 형상화가 돋보이는데, ‘삼경(三更)’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이미지화하여 나타나는 검은색과 ‘이화’, ‘월백’, ‘은한’의 하얀색이 어우러져 봄밤의 정취를 극대화하고, 그 풍경을 관통하는 ‘자규’의 울음소리를 통해 ‘다정’한 화자가 느끼는 애상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제] 봄밤의 애상적 정서

(다) 최치원, ‘촉규화(蜀葵花)’

작품해설 : (다)는 ‘촉규화(접시꽃)’가 피어 있는 모습을 통해 출신(신분)상의 한계로 세상에 크게 쓰이지 못한 채 평범하게 살아야 했던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낸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은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화자의 출신과 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황량한 밭’은 화자의 미천한 출신을, ‘탐스러운 꽃’과 ‘향기’는 화자가 지닌 재능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고, ‘수레나 말 탄 사람’은 화자의 능력을 펴게 해줄 수 있는 위정자를 상징한다. 이처럼 화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그것을 맘껏 쓸 수 없는 처지에 대해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을 촉규화의 모습에 투사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제]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한스러움

43.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국화(菊花)’, ‘낙목한천(落木寒天)’의 시어를 통해 시의 계절적 배경이 가을임을 드러내고 있고, (나)는 ‘이화(梨花)’, ‘일지춘심(一枝春心)’의 시어를 통해 시의 계절적 배경으로서 봄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다)는 ‘매우(梅雨)’와 ‘맥풍(麥風)’의 시어를 통해 초여름 즈음의 계절적 배경을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다)의 ‘수레나 말 탄 사람 그 뉘가 보아 줄까?’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냉소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만, (가)와 (나)에는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② (나)에 자규(子規)가 나타나지만 청각적 심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가)와 (다)에는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나)의 종장 ‘다정(多情)도 병(病)인 양하여~’에 직유법이 나타나 있으나, (가)와 (다)에는 직유법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가)의 종장에서 영탄적 표현이 나타나 있으나, (나)와 (다)에는 영탄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44.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가)에서 동풍이 불어오는 삼월은 낙목한천과 대비되어 상대적으로 꽃을 피우기 좋은 조건을 나타내는 배경이고, (나)에서 은한이 기우는 삼경은 봄밤의 애상적 분위기를 느끼기에 적합한 배경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가)와 (나)에는 화자와

대상 간의 이별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③과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낙목한천(落木寒天)에 ‘네 홀로’ 피었다는 것은 다른 꽃들이 삼월동풍(三月東風)에나 피는 것과 대조되어 국화의 외롭고 고고한 속성을 드러낸다. ② 밝은 달빛을 받는 ‘이화’에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는 ‘애상적’인 것으로, 이는 중장에 오면서 전통적으로 슬픔과 한(恨)을 표상하는 자규(소쩍새, 접동새)를 매개로 더욱 심화되어 나타나게 된다. ④ ‘오상고절(傲霜孤節)’은 ‘서릿발이 심한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외로이 지키는 절개’라는 뜻으로 국화의 굳은 절개를 드러내는 말이고, 다정(多情)은 ‘정이 많음’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화자의 속성은 초·중장을 통해 심화되는 애상적 정취에 화자가 흠뻑 취하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⑤ 오상고절은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고, 이를 지닌 것이 ‘너뿐’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예찬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다정(多情)한 화자가 봄밤의 애상적 정취에 ‘잠 못 들어’ 한다는 것은 봄밤의 감흥을 주체하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4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촉규화’는 출신상의 한계로 세상에 크게 쓰이지 못한 최치원의 처지를 표현한 작품이고, 이에 근거해 [B]를 해석해 보면 ‘향기’와 ‘그림자’는 최치원의 재능을 표상하는 것인데, 이것이 ‘희미해지고’, ‘기우뚱’해진다는 것은 곧 최치원의 재능이 쓰임을 받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B]에서 능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읽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쓸쓸하게 황량한 밭’은 출신상의 한계를, ‘탐스러운 꽃’은 탁월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A]에서 이들은 의미상 서로 대비되어 있다. ③ ‘수레나 말 탄 사람’은 화자를 크게 써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뜻하고, ‘별이나 나비들’은 늘 꽃과 함께 있는 평범한 이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는 전자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후자와 같이 지내는 현실을 아쉬워하고 있다. ④ ‘태어난 곳 비천하니 스스로 부끄럽고’에서 출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사람들이 내버려 두니 그저 한스럽네’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⑤ ‘탐스러운’, ‘여린 가지 누르고 있네’에서 촉규화에 대한 외양 묘사가, ‘부끄럽고’, ‘한스럽네’의 표현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 내면 서술이 나타나 있다.